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강론(2019년 9월 22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한 자매님이 성당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글라스 낀 것도 모르고 막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 합니다.

“여기 휴게소는 전등이 나갔으면 갈아야지... 전등도 안 갈고 뭐 하는 건지...” 나중에 옆에 있는 분이 선글라스 낀 걸 알려줘서 참 민망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어서 민망한 경우나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땐 그냥 너무 창피해 하지 마시고 그냥 뻔뻔해 지는게 최고입니다.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자존심, 체면, 혹은 교만한 마음,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콧대 높은 여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죠.그래서 여자가 성질을 버럭 내면서 버스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슬그머니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세요. 똥이 다 차야 갑니다.” 괜히 성질내다 체면만 구긴 경우입니다.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희극 작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하실 수 없거든,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뚱뚱하게 해 주세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는데 참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지만 요즘은 더 편안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큰 욕심 안 부리고, 기대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만,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성당은 참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오래동안 가톨릭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미국 백인들만 주로 사는 동네에서, 동양인 신부가 가서 또 평화롭게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방에 화초를 좀 키우고 있는데, 저는 오랜 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제 방에는 생명체가 전혀 숨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화초를 키우니까, 제 방에 또다른 생명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잘 돌봐주고, 물도 제때 맞춰 주고, 잘 못 된 곳은 없는지 자주 쳐다보고, 더러운 곳은 닦아 주기도 하고,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화초들이 아주 잘 자라 줍니다. 같이 음악도 듣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화초들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로운 싹을 하나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잎사귀가 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작은 꽃 봉우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고, 고맙고, 행복해서 한참을 쳐다 봅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요즘 저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째 우리 교구에 새로 오시는 외국인 신부님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인도 신부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우연히 그 신부님의 미국 생활 적응을 도와드렸어요. 미국 성당에서 사는 방법,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 운전 면허 따는 법, 은행 업무, 여러가지 행정 업무들, 미국 성당에서 강론하는 법, 미국 성당 사목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구에 처음 오셔서 활동하게 된 외국인 신부님들 적응을 계속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신부로 미국 교구에 적응해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미국 교구에 오시게 되는 외국인 신부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처음 오신 신부님을 일년 동안 교육을 해서, 본당으로 보내드렸는데, 올해도 인도에서 처음 오신 한 신부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사제관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 데리고 다니고, 운전하는 법부터, 미국에서 사는 방법, 심지어 요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 신부님들은 요리를 못해요. 인도에서는 늘 사제관에 음식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부들이 굳이 음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제관에서는 신부들이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이 인도 신부님한테, 음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는 법부터, 양파 까는 법, 인도 카레 만드는 법, 등등… 참 별일 다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소문이 나서, 제가 요리 못하는 신부님들을 모아 놓고 요리 강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래 저래 딸린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쁘기도 하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또 축복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국 순교자 대축일 미사를, 미국 땅에서 우리 말로 함께 봉헌을 하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미국 신부님들이나, 미국 신자분들께 한국 가톨릭의 순교 역사를 이야기하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와 순교 성인들의 일대기는 세계 교회에 둘도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선교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생적으로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 성장한 하느님 섭리의 놀라운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순교자들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도 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이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이 되면, 미국 신자들에게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 신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과연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세계 교회도 인정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 성인들 대축일은 한국 신앙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축일입니다. 우리 순교 성인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한번만 부정하고, 단 한번만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 주겠다고 하는데도, 죽음을 택합니다. 십자가에 침 한번 뱉고 돌아서 버리면 살려준다는데도 그냥 죽음을 택합니다. 가족이 불쌍하고, 처자식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떠나면서도 아무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하도 하도 답답해서 한 동네 사람이니까, “이보게, 이서방, 김서방, 일단 살고 보자고... 나가서 자식새끼들 데리고 살아야 될 것 아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게 꽉 멕혔나?”하고 설득 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내 삶을 영위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배반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굳건한 신앙심 위에 한국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9월 달을 순교자 성월로 정해놓고 순교에 대한 깊은 묵상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바쳐 피흘리는 순교가 현대를 사는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할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참 부담스러운 말도 없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할 땐 좋은데,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별로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액세사리의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 죄수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과 저주를 상징했던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는데, 이 고통의 상징, 흉물 덩어리인 십자가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지, 목걸이, 팔지 등등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상징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의 상징, 사랑의 상징,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십자가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많은 십자가들은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들입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이 십자가들은 할 수 없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당당하고 겸허하게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지켜내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고집과 자존심, 체면을 버리고 함께 살아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순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는 사랑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